

2023. 1. 31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월 30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
공정경제담당관

서울소셜벤처허브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5매

공정경제담당관		최원규	02-2133-5360
상생기업지원팀장		최현국	02-2133-5493
주무관		김수정	02-2133-5501
서울소셜 벤처허브	센터장	도현명	02-6230-0301
	전략실장	신성애	02-6230-0302
공식 누리집		http://www.svhc.or.kr	

서울시, K-청년창업메카 '서울소셜벤처허브' 입주기업 모집... 2년간 사무공간 무상지원

- 약자와의 동행·서울의 사회문제 해결할 사업모델 보유 소셜벤처 5곳 선정, 밀착 지원
- 최장 2년 사무공간 무상제공, 자금유치·판로지원 등 창업기획자 컨설팅과 전담 멘토제 운영 등
- 2월 26일(일)까지 입주기업 모집, 올해 4월 입주...창업 7년 내 소셜벤처면 지원 가능
- 현재 입주 중 15개 소셜벤처, 지난해 (매출)130억원 (신규고용)190명 (투자유치)50억원 성과

- # '넷스파'는 페어망을 수거해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(업사이클링) 소셜벤처로, 탄소배출 감축과 재활용 원료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15억 원(누적45억원) 투자유치에 성공했다.
- # '페이퍼팝'은 책상·의자 같은 가구와 일상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종이로 만들어 판매하는 소셜벤처로, 22년 매출이 17억 원으로 70% 이상 급성장하였다.
- # '더그리트'는 기업의 사내 식당과 카페 등에 매일 150만 개 이상의 다화용기를 공급하는 기업으로, 지난 1년간 36명을 신규 고용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도 증가했다.



넷스파(주)



(주)페이퍼팝



(주)더그리트

-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글로벌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K-청년 창업메카 ‘서울소셜벤처허브’ 입주기업 15곳이 지난해 매출 130억원, 신규고용 190명, 투자유치 50억원이라는 괄목할 성과를 냈다. 지적 재산권 출원과 등록도 44건에 달했다.
- ‘서울소셜벤처허브’는 환경·돌봄 등의 ‘사회문제 해결’과 ‘기업의 지속 가능한 이윤 확대’, ‘청년 일자리 창출’이라는 3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’19년 10월 서울시가 개관한 소셜벤처육성기관이다.
- 서울시가 2023년 K-청년창업의 새로운 역사를 쓸 ‘서울소셜벤처허브’ 신규 입주사 5곳을 2월 26일(일)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. 현재 입주해 있는 15곳 중 5곳이 입주 2년이 경과해 신규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.

<최장 2년 사무공간 무상제공, 자금유차판로지원 등 창업기획자 컨설팅과 전담 멘토제 운영 등>

- 신규로 선정된 소셜벤처 5곳은 최장 2년간 ‘서울소셜벤처허브’ 내 개별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. 창업초기 고정비용 투입이 어려운 새내기 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.
- 사무공간은 2인실(9.6 m^2)부터 10인실(33.82 m^2)까지 다양하며 책상과 의자, 서랍장 등 기본 사무기기가 비치되어있다. 관리비는 월 14만원~63만원 수준이다. 사무공간 외에도 공용회의실, 세미나실, 휴게공간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

- 소셜벤처 전문 창업기획자(엑셀러레이터)의 기업특성에 맞는 단계별 밀착 지원도 받을 수 있다. 투자 연계를 통한 자금 유치와 판로 지원, 기업투자설명회(IR), 세무·법률 전문 컨설팅 등 소셜벤처로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준다.
- 아울러 입주기업별 전담 멘토를 배치해 중장기 사업계획 점검부터 개방형혁신(오픈이노베이션) 및 시범사업개발비(PoC) 연계,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개선 등 소셜벤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빼놓지 않는다.
- 시는 ‘서울소셜벤처허브’는 지방 또는 서울근교에 위치한 타 창업보육기관과는 달리 벤처투자사와 엑셀러레이터 등이 밀집한 테헤란로(지하철 선릉역 도보 5분)에 위치해 사업확장을 위한 관계망 구축에 유리하다며 입주만으로도 많은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.

<2월 26일(일)까지 입주기업 모집, 올해 4월 입주..창업 7년 내 소셜벤처면 지원 가능>

- ‘서울소셜벤처허브’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2월 26일(일)까지 누리집(svhc.startup-plus.kr)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.
- 대상은 공고일('23년 1월 30일) 기준 창업 7년(84개월) 이내 서울 소재 소셜벤처 법인 중 약자와의 동행과 연계 가능한 연구개발(R&D)분야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, 안전 등), 서울의 중요한 사회문제(환경, 생활환경, 기후, 재생에너지 등)를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 기업이면 된다.

* 서울시 내에 소재 또는 입주 시 60일 이내 사업자등록(지점 또는 연구소 등) 주소지를 센터로 이전 가능 및 개인에서 법인 전환 가능한 사업자 포함

□ 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▲사회적가치(30점) ▲사업성(30점) ▲추진역량(20점) ▲기대효과(20점) 등 4가지 항목을 평가해 종합평점 70점 이상 기업 중 높은 점수순으로 입주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.

- 사회적 가치(30점):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정의 및 해법 타당성 등
- 사업성(30점): 사업성장 및 매출실현 가능성, 재무적 안정성 등
- 추진역량(20점):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역량, 열정, 발전 가능성 등
- 기대효과(20점): 입주에 따른 기대효과 및 센터 활성화에 대한 참여 의지 등

□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업은 3월 24일(금)에 서울시, 서울소셜벤처 허브 누리집에서 공지한다. 입주는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이며 기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1년 연장할 수 있다.

▶ 문의: 서울소셜벤처허브 성장지원팀 02-6230-0306/ svhc@svhc.or.kr

□ 박재용 서울시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은 “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, 지속가능한 이윤을 추구하는 말 그대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청년창업의 대안이다”며 “입주기업들이 약자와 동행하고 서울의 사회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소셜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”고 말했다.



서울소셜벤처허브 공용공간



서울소셜벤처허브 공용공간



회의실



프라이빗 오피스



공유공간



세미나실